

광주시, 기업 투자유치 초라한 성적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광주시의 지난해 기업투자 유치실적이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실이 공개한 ‘광주 투자유치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광주시가 거둔 초라한 투자유치 실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는 수도권 등 외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광주시로 투자한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조례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6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2018년에는 단 2곳에만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외지에서 광주로 생산 시설 등을 옮겨온 이전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이주 직원 보조금’의 경우도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로 투자하는 관외기업 이주 직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주로 옮기고 1년 이상 된 직원들에 대해 이주 직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가족 동반 이주’시 200만원, 직원 1인 이주 시 60만원을 지원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광주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해 4년 전인 2015년 6월 광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광주 현지로 생산라인을 옮겨온 대우위니아였다.

대우위니아는 2년 뒤인 지난 2017년 7월 주력 생산제품인 김치냉장고(담체) 생산라인을 광주하남산업단지로 옮기는 공장 이전을 완료했다.

이후 광주시가 현지 근무자들의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해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에 나섰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우위니아의 근무 인력 대부분은 ‘거리기 가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산단 내 대우위니아 광주공장 직원 282명 전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지만 보조금 신청자는 가족동반 이전 직원 2명과 홀로 이주한 직원 14명 등 16명에 그쳤고, 보조금 지원도 124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산업단지 인근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이유로 가족 동반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촉진이라는 두

2018년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업체 ‘2곳’ 불과 가족동반 ‘이주 보조금’ 지원 실효성 못 거둬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보조금 보다는 지자체가 산업



소망풍선 날리는 새내기들 26일 부산 남구 동명대 운동장에서 열린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한 새내기 2000여 명이 미리 준비한 소원풍선을 매년 풍선을 날리고 있다.

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광양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배출 대책 마련 촉구

광양제철소 등 대기오염배출업체 책임 있는 대책 시급

산업체와 전남도는 미세먼지 근본적인 감축 방안 마련 필요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과 이에 따른 방안으로 ‘정부중합 미세먼지 특별법 대책’을 발표하고 고농도 발생 해당 지자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광양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백성호, 공동의장 정복엽)은 “광양제철소와 광양반려 대기오염배출업체는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책임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표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최근 방송에서 포항제철소가 연간 만 6천 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13%에 육박하는 양에 해당해 포스코가 오늘의 미세먼지 발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은 미세먼지 과다발생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거론할 만큼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시도 대표적인 위험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광양시는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

의 세세한 관리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포스코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1년까지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문제의 시급성은 이보다 더한 만큼 전남도와 광양시 등 인근 시·군이 해당지역 기업체 미세먼지배출량을 계량한 배출감소대책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 지자체와 포스코를 포함한 해당지역 기업들이 협력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공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공단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유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광양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국조각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 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평양=김승호 기자

후배 각목 폭행 전남모간부소방관 입건

후배 소방관을 각목으로 때린 간부 소방관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26일 후배 소방관을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지역 모 소방서 간부 소방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에 목포시 한 야산에서 후배 소방관 B씨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업무 과정에 시비가 붙었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 “업무 도중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욕설을 들었다. 추후 개인 전화로 항의하는 과정에 욕설을 주고받았고, 다음 날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지역 한 공터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터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놔두고 야산으로 오라는 지시를 따랐다. 야산에 가니 각목을 들고 있던 A씨가 앞뒤러뻘쳐 자세를 시킨 뒤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순 B씨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A씨가 근무 중인 소방서도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핀 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진술 내용이 일부 다른 점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데로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 오피스텔 사기 피의자 필리핀서 붙잡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사기사건의 주범이 지난주 필리핀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오피스텔 사기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공인중개사 A(57)씨가 필리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당시 경찰은 인터넷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에서 절도죄 처벌을 받은 후 국외 추방 처분이 결정되면 필리핀으로 들어가 범죄자 인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창원시 상남동 오피스텔 1층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던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층계약서로 공법 B(57·여·무직)씨 등과 함께 세입자들을 속여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의 받아 가로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 모자 탄 전동휠체어 택시와 충돌

부산에서 장애인 모자가 함께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택시와 충돌해 60대 어머니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복지관 앞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와 전동휠체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A(67·여)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오전 10시 8분께 숨졌다.

A씨의 아들 B(44)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택시가 적색 점멸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오르막 도로를 역주행을 하던 전동휠체어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애가 있는 B씨는 밤늦게 퇴근하는 어머니를 마중 나왔다가 지친 어머니와 함께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르막 도로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어머니 A씨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꾸짖는 노인엔 흥기 들이댄 10대 검거

경기 군포경찰서는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고 꾸짖는 노인에게 흥기를 들이댄 A(17)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에 지하철 안에서 70대 노인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리치고 있던 흥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A군은 군포시에 있는 한 역에 내린 뒤 흥기를 들고 승강장을 돌아다니다가 시민 신고가 접수돼 검거됐다.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는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황실수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경찰은 노인 B씨가 “전화통화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